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가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이 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탁월한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의 무궁변영의 새력사를 열어놓으신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최태복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책총화에 대하여

2. 조직문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대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전반적12년제무교육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정부가 실시하여온 전반적11년제무교육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교육총서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령제》를 내놓으시고 주체교육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체교육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교육총서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변영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각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의 교육총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귀중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나설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오늘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은 혁명발전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교리는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데 있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꾼들과 교육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할데 대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수 있게 나라의 중등일반교육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벽해나갈데 대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학생교육요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켜나갈데 대하여,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지도사업체제와 질서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법적통제를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끝으로 그는 모두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여 주체교육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로두철대의원, 한광복대의원, 김승두대의원, 동정호대의원, 리만건대의원, 장병태대의원, 전용남대의원, 김금순대의원, 최정룡대의원, 안금철대의원이 토론하였다.

리훈영대의원, 정형숙대의원, 임종실대의원, 김인순대의원, 김득삼대의원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

의 부강변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고 하면서 당의 중대한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구현되어있는 전반적12년제무교육이 실시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반적12년제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혁명인재육성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체제의 우월성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더욱 역세게 키워나가는 데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최룡해대의원을 직무변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

회 부위원장에서, 장정남대의원을 직무변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제의에 따라 황병서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영철대의원, 리병철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최태복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제12차 전국래권도기술혁신경기 진행

제12차 전국래권도기술혁신경기가 16일부터 23일까지 평성시에서 진행되었다.

래권도국가종합선수단과 조선체육대학, 중앙체육학원, 평양시, 각 도, 순천체단트러닝합기소래권도선수단 등 15개 단체에서 선발된 200여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였다.

경기는 1부류와 2부류로 나뉘어 맞서기, 틀, 특기, 위력, 호신경기의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 진행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8일과 19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었다.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한덕수령양공공업대학,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등 과학, 교육기관, 화학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

### 송도원역-세걸역사이 철길 개통, 송도원역 준공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아난 송도원 국제소년단아영소의 아영생들을 위한 새 철길과 철도역이 훌륭히 건설되었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령, 미래사람에 떠받들려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역-세걸역사이 새

평양시래권도선수단이 종합 제1위를 쟁취하였으며 평안남도래권도선수단과 함경남도래권도선수단이 각각 제2위, 제3위를 하였다.

맞서기경기에서는 함경남도래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래권도선수단(여자)이, 틀경기에서는 평안남도래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래권도선수단(여자)이, 특기경기에서는 평양시래권도선수단(남자)이, 위력경기에서

는 조선체육대학(남자), 강원도래권도선수단(여자)이, 호신경기에서는 평안남도래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래권도선수단(여자)이 각각 우승하였다.

한편 바둑단체전에서는 함경남도래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래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래권도선수단(여자)이 높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 발표회 진행

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내놓은 논문들이 현실적가능성과 경제적인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중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소년단아영소의 종영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전길수철도상이 하였다.

이날 기쁨에 넘친 참가자들의 환영속에 첫 열차가 사랑의 기적소리를 울리며 평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애국애족의 내용단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을 마련하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발표로 감격에 겨웠던 그때를 돌이켜보고있다.

수십년세월 꿈꿔 열어보았던 대결의 동토대가 봄눈처럼 순간에 녹아내리고 꿈과 같이 열린 하늘길, 바다길, 땅길로 북과 남의 수많은 우리 겨레가 오가고 서로 일사단일하며 파연 이것이 통일임을 실감하던 감격과 기쁨의 나날들이었다.

10.4선언의 채택으로 6.15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평화변영과 통일에로 가는 넓은 길이 열렸을 때 우리 겨레는 말그대로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휩싸였다.

그런데 남조선에 등장한 리명박수 《정권》은 6.15가 이루어놓은 꿈과 같은 현실을 모두 부정하고 북

남조선에서 북남관계의 운명은 어떻게되었는지 공화국을 심히 자국하여 대결을 격화시키는 불순한 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21일 남조선의 경기도 파주에서 국유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인간스페기들은 북측을 향하여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는 불순한 내용으로 일관된 수심만장제책, USB와 DVD, 불순소문자 등을 대형 풍선에 대달아 날려보

내는 국도의 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베라살포는 공화국에 대한 비방과 심리모략전의 주되는 방법으로서 반공화국적대외의식의 집중적인 발로이다.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는 때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으면서 공화국을 헐뜯고 자국하는 베라살포에 열을 올리는 인간스페기들의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문제는 동족을 악의에 차서 헐뜯고 비방증상하는 악질 《탈북자》단체들의 베라살포행위가 남조선당국의 묵인고 비호, 조장하에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날로 우심해지는 인간스페기들

## 관계개선도 평화통일도 오직 이 길에

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공공연히 거부해나섬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북남관계를 또다시 대결로로 돌려세우고 통일 시간표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그들은 북과 남의 수뇌부들이 합의하고 온 민족과 세계앞에 엄숙히 섰노한 10.4선언을 《무도한 약속어음》, 《새 〈정권〉이 리행할 무가 없다.》느니 하고 전면부정하였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활로를 열어온 6.15선언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하였다.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된 북남대결은 동족사이에 불과 불이 오가는 비극적사태를 초래하였으며 그러한 대결상대는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뀐 오늘까지도 지속되고있다.

어서빨리 통일을 이루고 하나의 강도에서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 겨레가 서

로 총부리를 맞대고 대결하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과 온 겨레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이 하루빨리 대결정책을 전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날로 높아가는 내외여론의 압력에 의해 궁지에 몰린 남조선보수당국은 《대화》로 뒤오 하면서 대결정책을 가리우고 마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현안문제들을 협의해결하려는 의사가 있는듯이 교활하게 놀아내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술책으로도 저들의 대결적정책을 가리울수는 없다.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한창 벌여놓고 이른바 《대화》를 제의한것자체가 어불성설인데다가 국제무대에까지 나가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벌여놓고 동족이 참가한

국제체육경기대회가 절정에 오른 지금 공화국을 반대하는 베라살포행위를 벌리는것만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살길이고 공존공영하는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앞에서 남조선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다 들어있으며 선언이 리행될것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갈수 있다.

10.4선언을 포함한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여기에 북남관계개선도 있고 화해, 협력도 있으며 평화와 통일도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온데 감행된 이번 베라살포놀음은 남조선당국이야말로 대결에 환장이 되어 국제체육경기대회도, 그에 참가한 동족의 성의도 간에 없고 이번 경기대회에 불어넣치는 화해와 통일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천하무돈한 불한당집단이라는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있다.

속에 대결의 흑심을 계속 품고있으면서도 《신퇴》니, 《대화》니 떠드는것이 야말로역경기 그지없는 처사이다.

더우기 대방의 최고 존영을 모독하면서 《신퇴》를 운운하는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며 파렴치한 망발의 극치이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대결을 고취하는 국유보수단체들의 베라살포행위를 계속 비호조장하는것은 로폭적인 북남관계파괴책동이다.

그것은 남조선당국이 바라는것이 대화와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무모한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가 가져올 엄청난 후과를 똑바로 보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